국립중앙博, 문화유산 보존과학 새 장 열다

10월 28일 보존과학센터 개관
9196㎡ 규모, 첨단 시설 갖춰
3D 형상분석·비파괴 조사 등
보존과학 50년 담은 기념전
'종합 보존과학 허브' 기대 모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전경.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학의 새 장을 열 연구·보존 기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10월 28일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했다.

이번 보존과학센터 개관은 1976년 보존기술실로 시작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 연구가 반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성과다.

총 연면적 9196㎡ 규모의 보존과학센터에는 최첨단 보존과학 시설들이 들어섰다. 센터에는 △유물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진단실 △유물의 형태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재질별 맞춤형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보존처리실 CT(컴퓨터 단층 촬영) 등 비파괴 조사 장비를 갖춘 비파괴 조사실 △전자현미경 등 분석 장비를 활용한 분석실 △박물관 환경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환경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보존과학 인력의 전문 교육을 위한 교육실과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가 가능한 세미나실까지 설치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센터는 연구와 교육,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보존과학 허브로 나아갈 예정이며 인문학적 연구와 과학 기술을 결합한 문화유산 보존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과학센터 개관을 기념해 특별전 '보존과학,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를 센터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보존과학의 50년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보존과학의 방향을 담아냈다.

개관 기념 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의 역사'에서는 1976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보존처리 장면들과 기록자료를 통해 박물관 보존과학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부 '빛으로 보는 보존과학의 세계'에서는 보존과학의 핵심 도구인 '빛'을 활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물 속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선보인다.

3부 '보존과학이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유홍준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개관은 우리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지키고 연구해 온 50년의 성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융합된 문화유산 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물 연구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연구 환경 조성, 보존과학 전문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AI 기반 손상도 측정 및 보존처리,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모니터링 및 대응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보존과학 시스템과 연계한 원격 지원·원형복원 기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불안과 괴로움은 어디에 있지 않다

⑯ 오온개공 도일체고액

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인간에게 깃들거나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다. 불안과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와 청정, 평안과 기쁨의 열반이 드러난다. 석가모니 붓다의 모든 가르침과 수행법은 이 열반을 지향한다. 이후 대승불교와 선종불교 또한 관점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열반에 이르고자 한다.

초기불교는 인간 안의 감정·심상·행위·인식 등을 분석적으로 통찰해 그것들이 영속적이거나 실체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탐욕·분노·어리석음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그렇다면 대승불교는 번뇌와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멸시켰을까?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한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아라(照見五蘊皆空).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度一切苦厄)."

오온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즉 몸[色]·감정[受]·심상[想]·의도[行]·인식[識]을 뜻한다. 이를 통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만들어 낸 감정·행위·기억들임을 알 수 있다. 경전은 이러한 괴로움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공'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해 보자. 〈반야심경〉은 설한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여기서 '모든 법'은 이름과 형상, 작용을 가진 모든 존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안한 사람도, 맑고 평화로운 사람도 모두 '법'이다. 철학자 칼 포퍼의 독법을 빌려 이 구절을 주어가 아닌 서술부에서 읽어 보자.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모든 법", 이것이 곧 '공'이다.

이 의미를 자신에게 비추어 보자. 지금 분노와 증오로 괴로워하는 '나(모든 법)'는 어디선가 '있었던' 분노와 증오에서 옮겨 온 존재가 아니다. 발생이 없으니 소멸도 없다. 나는 본래 분노와 증오로 오염된 존재가 아니며 그것들이 끝없이 확장될 운명에 놓여 있지도 않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실이다. 그래서 선종불교에서는 번뇌가 본디 없음을 뜻하는 '본무생사(本無生死)'를 말한다.

결국 모든 것은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 발생과 소멸, 있음과 없음이 본래부터 내 안에 자리한 것이 아님을 깊이 사유해 보라. 그렇다면 자유롭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네팔 비구니 승원 5년 만에 재개원

코로나 폐쇄 둑빠 아미타바
졸업 후 고향서 여성 교육 봉사


재개원 기념식에서 쿵후 수련을 시연하는 비구니 스님들. 사진 출처=인디펜던트 뉴스

네팔 카트만두 근교 언덕에 소재한 둑빠 아미타바 비구니 승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지 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디펜더트 뉴스' 등 해외 언론은 둑빠 아미타바 비구니 승원의 새로운 시작을 특별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개원 기념식에서 스님들은 몸과 정신의 건강을 모두 챙긴다는 의미에서 쿵후 수련을 대중 앞에서 시연했다.

2009년 네팔에 개산한 둑빠 아미타바 비구니 승원은 티베트 불교의 둑빠 까규파에 소속된 승원이다. 일반적으로 티베트의 비구니 스님들은 교학 연찬과 수행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둑빠 까규파 종정인 걜왕 둑빠 린뽀체는 "여성 수행자의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높이기 위해 육체적인 운동도 필요하다"며 여성 출가수행자들이 쿵후를 배우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미타바 승원에는 6세부터 54세까지 3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며 쿵후를 수련하고 있다.

아미타바 승원의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무외(無畏)'라는 뜻의 티베트어 '직메'를 법명으로 받는다. 스님들은 대부분 부탄·인도·네팔 출신으로 쿵후 수련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강원 교육과 수행체계를 익힌다. 강원 졸업 후에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여성 교육의 일선에 나선다.

승원 측은 이러한 교육체계에 대해 "진정한 정신적인 원류인 진리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미타바 승원은 실제 도보나 자전거로 히말라야 지역을 일주하며 재해 구호를 위한 자금을 모으거나, 환경 보호 활동 등 실천 불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INEB, 국제 불교 청년 프로그램 개최

대만 불교 홍시대학과 협력
11월 3일까지 '사회 변혁' 논의

전 세계 3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불교 NGO인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제 청년보살 프로그램 2025'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2일 국제 불교미디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의 보도에 따르면, INEB는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세계평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다. 현재 3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 측 회원으로는 정토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 청년보살 프로그램은 INEB가 젊은 불교지도자와 사회 활동가들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2주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만 불교 홍시대학(Buddhist HongShi College)과 협력해 '영적 부흥과 사회 변혁을 위하여'란 주제로 진행됐다.

22일 개회식에서 INEB 설립자인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21세기에서의 보살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개회사를 통해 공유했다. 불교 홍시대학 설립자인 스차오휘 스님 역시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 불자들이 영적인 성장 속에서 사회변혁에서의 자비, 정의, 비폭력 실천을 당부했다.

청년보살 프로그램은 지적, 영적, 신체적 수행을 포함하는 세 가지 주제의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INEB는 "청년들이 불교수행과 현실 세계에 대한 참여를 결합해 내면으로는 깨달음을, 외부적으로는 사회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리 준비하는 26년 성지순례+관광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화엄의 세계가 담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지상낙원 발리 4박6일

구법의 여정을 따라서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꽃피는 봄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박5일
다카마츠/시코쿠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